

윤장현 시장, 허성관 임명 강한 유감 표명

〈광주전남연구원장〉

시·도의회, 원장 임명 효력정지 가치분신청키로

김수삼 이사장 사퇴 촉구... 법정 공방 갈 수도

광주전남연구원의 허성관 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윤장현 광주 시장이 26일 강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원장 임명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주요 의제이자 첫 결과물이었다는 통합 광주전남 연구원 초대 원장 임명 강행 논란이 시·도 간 갈등 및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허성관 광주전남 연구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 “광주·전남의 매우 중요한 상생의제였는데 안타깝

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연구원 이사장이 어떤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 서라도 시·도민 입장에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시장은 그동안 연구원장 임명이 이사장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해 허 원장 임명 논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혀왔다. 임명 후 공식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임명 전에 ‘허 원장이 부적격하다고 결론 낸’ 정문화를 그냥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고 선임 과정에서도 광주시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반대)사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며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임명 무효화 등을 위한 법적 절차 가능성은 묻자 윤 시장은 “이사회에서 할 일”이라며 “이사들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원장 임명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과 허 원장 임명을 강행한 김수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갈음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수삼 이사장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데도 독선적으로 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전남도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해 법정 공방까지 예상된다.

연구원 이사회는 시·도 의회 공동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정, 노동단체 등의 반발에도 허 원장 임명을 강행해 반발을 예고했다.

광주시 추천 일부 이사들은 지난 22일 이사회 간담회 중 허 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간 점으로 미뤄 광주시는 사실상 인사청문회 결과와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 허 원장 임명을 반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이사장이 광주시 추천 이사들의 반발에도 허 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고교 선후배라는 학연 등이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성공 자산 광주발전 동력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정 역점사업 추진

광주시가 2015 광주세계U대회 자산을 활용, 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이어가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스포츠 성지의 광주 이미지 제고 방안 ▲참여와 연대의 시민정신 계승·함양 방안 ▲U대회 경험을 광주시정에 접목하는 방안 등이다.

접수기간은 26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우수작 10편을 선정해 경연대회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 1편에는 시상금 200만원이, 금상 2편에는 각 150만원, 은상 3편에는 각 100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가 추진 중인 ‘포스트(Post) 광주U대회 종합계획’에 반영해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이디어 접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는 광주U대회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보여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접수처는 광주시 정책기획관실 공모전 담당자이며, 문의는 전화 062-613-2360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누문구역 뉴스테이 협약식. 윤장현 광주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정순일 KB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김형완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장과 ‘누문구역 뉴스테이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완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장, 윤장현 시장, 정순일 KB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광주시 제공>

광주 남구·강릉·고령

‘품앗이 관광단’ 운영

한국관광공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17 올해의 관광도시’인 광주 남구, 강릉시, 고령군의 시민단체·지역연로·관광업계·지역주민단체로 구성된 품앗이 관광단을 운영하고 이들이 상호 교류·방문토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 3곳을 선정해 3년동안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인 양림동을 중심으로 100년의 세월을 품고 있다. 강릉시는 경포대·안목커피거리·오죽헌 등으로 힐링(healing)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고령군은 대가야박물관·왕릉전시관·우륵박물관·대가야역사테마파크 등을 보유해 문화체험도시로 분류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아차 협력업체 노사합의 이끈 광주시

현대위아 파업 중재 나서

타임오프제 합의 등 일조

광주시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핵심 부품 제조업체의 노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자칫 지역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막는데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웅 기아자동차 부사장(광주공장장)은 26일 오후 광주시청을 방문해 “현대위아의 파업으로 예상된 손실을 광주시의 중재로 막았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시장은 “상생경제의 중심은 노사 상생을 통한 기업육성이고 결국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도 밑거름될 것”이라며 “기아자동차도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파트너가 되달라”고 화답했다.

현대위아 광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사무실 설치,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도입, 기본급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했지만, 진전이 없자 지난 19일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대위아 광주공장은 자동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기아차 협력업체로, 파업이 확대되면 기아차 광주공장 일부 라인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이 발빠르게 중재에 나서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수용 등 노사간 잠정합의를 끌어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예고한 날(23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 본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져 생산라인 가동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부품 납품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누문동 기업형임대주택 속도낸다

市-KB부동산신탁-누문구역조합 업무 협약

설계·시공 등 지역업체 참여 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광주 북구 누문동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뉴스테이) 사업이 관련 당사자 간 협약이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설계부터 시공까지 지역 건설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 포함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KB부동산신탁(주) 정순일 대표이사 및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김형완 조합장은 이날 3차 업무협약을 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광주시는 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과 시행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누문구역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됐지만, 미분양 우려에 따른 시공사 선정 예로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앞서 이달 초 광주시는 국토부와 협약을 하고 행정절차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에 합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누문구역 정비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원도심 개발이라는 점에서 시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심권이라는 점에서 사업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KB부동산신탁(주) 정순일 대표이사 및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김형완 조합장은 이날 3차 업무협약을 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광주시는 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과 시행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누문구역은 2006년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됐지만, 미분양 우려에 따른 시공사 선정 예로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앞서 이달 초 광주시는 국토부와 협약을 하고 행정절차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에 합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누문구역 정비사업은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원도심 개발이라는 점에서 시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심권이라는 점에서 사업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통시장·상점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지원

전남도의회, 조례 통과

전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통시장·상점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시책개발, 재원 조달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상점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전통시장 상인 교육, 빈 점포의 활용 지원, 업무상 필요한 물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고 전통시장 행사와 축제를 도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서지 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형석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교정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